

사순 제 4 주일

기도서 P 263 A해

제1독서 (사무상16, 1b. 6-7. 10-13a)  
제2독서 (에 폐 5, 8-14)  
복 음(요 한 9, 1-41)

# 숨 정이

발행처 전주교 전주교구  
편집장 사 목 국  
인쇄 관 리 국

편집실 : 전주서서노송동560~6  
전주 교구청  
☎ 5098 ④ 2935

□감 략



## 2 5 時

김 병 엽 신부

이 삼년전 우리 나라 권투 선수들이 여러 체급의 세계 챔피언을 보유하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방어진이나 도전을 여러번 갖았었다, 그런데 하필이면 주일, 젊은이들이 제일 많이 나오는 밤미사 시간에 시합을 하였었다,

어떤 주일에는 80명의 젊은이들이 미사에 불참하는 경우도 있었다, 본당신부로서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었다. 어떻게 하면 권투도 보고 미사 참여도 시킬까?, 생각한 끝에 텔레비전을 성당에 갖다 놓고 권투 시합이 끝나 나면 미사를 하기로, 시합이 있기 한주일 전에 발표를 하였다. 권투가 시작하는 공이 울렸다. 젊은이들은 좋아라 하고 열심히 보고 있는데 여교우들은 미사 수건을 쓰고 성경 낭독이나 묵주 신공을 하면서 권투 시합과는 하등의 관계가 없다는 듯이 만전을 피우는 여교우들이 대부분이었다. 누가 이기든지 3,4회 정도로 해서 끝이 나기를 애배우면서 끝나기를 바랐지만 15회까지 갈때는 조마가려 죽을 지경이었다. 시합중에 턱이나 배나 옆구리를 응골지게 맞을 경우 선수는 쓰러지고 만다. 그때 심판관이 9까지 셀때까지 일어나지 못하면 KO패로 선언하고 만다. 9이후 아무런 일어서서 상대를 열번 눌릴만한 힘이 있다 하여도 이제는 끝장인 것이다.

6·25사변 바로 전해에 발표한 게오르규의 25시의 장편소설은 세계적인 명성을 얻게 되었다, 내용인즉 기계주의·기술만능 주의·물질만능 주의·사회적 정치적인 그물에 낀자인 올라미로 말미암아 사람이 최후의 시각을 맞게 되는데 24시 다음에 오는 25시 (있을 수도 없는 시간이며 공상적인 시간)에는 메세아의 강림으로도 아무런 해결도 얻을 수 없는 절망의 시각이다, 그러니 24시 안에, 망하기 이전에 세상을 구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소설이다.

이 게오르규의 절규는 20세기 중반에 외쳐져 대명성을 얻었지만 역사적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2000여년 전에 외치셨던 것이다, “우리는 해가 있는 동안에 나를 보내신 분의 일을 해야 한다, 이제 밤이 울터인데 그때는 아무도 일을 할 수 없다” 고하셨다(요한 9장 4절)

오늘의 복음 성경 말씀은 참으로 심각한 말씀이 아닐 수 없다. 예수님이 아니셨더라면 영영 세상의 빛을 보지 못하고 죽어버릴 소경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눈을 떠서 세상에 빛을 본 것이다.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도 하나님의 생명권 안에 살 수가 없었지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권 안에 살게 된 것이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한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산다는 것은 모든 선을 실천하고 완덕에 나아가야 한다. 모든 선과 정의 실천하지 못하고 마지막 심장의 고통소리가 멈추었을 때 그 사람은 25시를 맞이하는 것이다. <전동천주교회 주임신부>



## 죽기 아니면 살기?

막다른 골목에 몰린 쥐는 고양이에게 목숨을 걸고 덤빈다고 한다. 일찍부터 사람들은 이기기 어려운 전쟁을 치를 적에는 배수진(背水陣)을 쳤다. 앞에는 적이, 그리고 등뒤로는 더 이상 도망갈 곳도 없다. 어차피 죽을 바에야 목숨을 걸고 용감히 싸울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바로 배수진을 치는 소이다. 운동 경기에서도, 불리했던 선수가 죽기 아니면 살기로 싸워서 이기기도 한다.

한마디로 말해서 죽기 아니면 살기란 죽음을 작오하고 최선을 다한다는 말이다. 인간에게 주어진 가능성과 능력을 최대한으로 쥐어 짜내는 것이다. 어디까지나 좋은 뜻의 일에 할 수 있는 한의 최선을 다한다는 말이다. 비록 그 일의 앞에 가로놓여 있는 장벽이 높고 험하다고 해도, 그 일이 좋은 일이라면 용기와 신념을 가지고 끝까지 해내자는 의지의 표현이다.

그러나 요지음의 세태를 보면, 죽기 아니면 살기라는 말(의지)의 쓰임이 나쁜 방향에 더 많다. 못된 일도 도모함에 있어서 끝장을 보는 식으로 결판을 내자는, 나쁜 의미로 쓰여지는 경우가 더 많이 눈에 뜨인다. 국제정세를 비롯해서 학교 교육에 이르기까지 능력과 실질만을 숭상하다보니 그런 결과를 초래하는 것 같다. 무엇이 옳고 그른가를 따지는 일은 머리가 아프고 귀찮으니 제쳐놓고, 우선 큰 곳감이나 먹고 보자는 사고방식이 바로 우리를 병들게 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 사회를 앞장 서서 이끄는 지도자들(정치가·경제인·교수·언론인·성직자...)이 먼저 수범을 보여야 한다. 죽기 아니면 살기로가 아니라, 죽기를 작정하는 수범을 보여야 한다. 권력과 명예와 부에 죽을지라도, 죽으면 영원한 삶이 있으리라는 희망(믿음)으로 하루 하루를 죽어서 살아야 하는 것이다.

## 숨 정이 산책



3월은 성요셉 축일  
기도하십시오

# Aggiornamento

## 교회 공동체의 새로움

김 준 호 신부

인간생활의 외적으로나 내적으로 여러가지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고 있는 '오늘'이라는 세대에 있어서 교회라는 입장은 적어도 20년전의 사고방식으로 현대인을 지도한다는 것이 지극히 어려운 일이 되었다.

현대라는 세계를 눈앞에 두고 우리가 살고있는 주위의 온갖 현실들을 직시하고 여기에 새로운 분석과 새로운 종합을 요구하는 새로운 문제들이 방대하게 야기된 것이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1962. 10~1965. 12)는 이러한 이 시대의 현실적인 분석아래 Aggiornamento(아지오르나멘토) 즉, "현대 사회와의 일치" 혹은 "시대적 징표", "우리 시대에 대한 감각"이라는 함축적인 의미의 단어를 외친 것이다.

이 단어의 의미는 교회가 현존하는 우리 시대를 올바르게 직시하고 이에 따른 올바른 분석과 대처를 모색하고 이 시대에 알맞는 사목적 배려로써 그리스도의 구원사업을 수행해 가자는데 의미가 있겠다. 한마디로 교회 공동체의 새로움— 이것은 모든 시대를 초월한 듯한 교회가 온갖 논의와 개혁, 변화와 격동하는 현실에 부딪쳐 와닿는 오늘날의 절실한 문제인 것이다.

이에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정신은 우선적으로 교회 쇠퇴를 제시한다. 그러나 이 쇠퇴는 어떤 외적인 개혁이 아니라 인간과의 관계에서 신앙적 가치관의 새로움을 뜻한다. 외면적인 탈바꿈이 아니라, 내면적인 탈바꿈으로 외적인 개혁을 위해서 우선 내적인 쇠퇴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이 쇠퇴에 평신도 뿐만 아니라 그 평신도를 지도하는 성직자가 제외될 수는 없다. 오히려 오늘이라는 시대적 상황에 살고 있는 평신도의 쇠퇴를 위해서 사제들의 쇠퇴가 우선적으로 요구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사제적 쇠퇴이란 무엇인가?

그리스도교적 생활의 원천과 본래 주어진 사제적 정신에 계속 새롭게 돌아감과 동시에 시대의 변화하는 상황의 적응을 내포한다.

천주 성부의 의도와 성신의 권유, 또 교회의 지도하에 복음에서 제시된 그리스도를 따름에 일치하기 위해서 정신적 쇠퇴로 신앙적 생기감을 채우고 영성의 깊이를 더하며, 현대의 필요에 대처할 수 있는 사목적 문제의 재고찰인 것이다.

급변 교구에서 개최하는 사제들의 모임은 이런 의미에서 사제생활 쇠퇴를 위한 집중세미나가 될 것이다.

그러기에 이번 세미나의 성공을 위하여 먼저 모든이의 절실한 기도가 요청되고 있는 것이다.

### 교회상식 ⑨

## 제 의 (1)

김 기 수 신부

사제가 경신례를 행할 때 구약시대부터 특별한 의복을 입었다. 이는 일상생활을 떠나서 제사의 위대함과 존경을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다. 이 때는 하느님과 사람과의 중재자로서 성제를 드리니까 신성한 제복을 입는 것이다.

1. 수단: 제복은 아니지만 평상시 정복으로 자기 몸을 가리우기 때문에 하느님과 교회에 봉사하기 위하여 자신을 바치고 속세에서는 죽었다는 표시로서 검은색이나 흰색으로 된 긴 옷이다.

2. 개두포: 제복중에서 제일 먼저 입는 옷으로 아마 포로 만든 네모난 보자기며, 끈이 양쪽에 길게 달려 있어 어깨위에 걸친다. 개두포란 구원의 투구란 뜻인데 이것을 입을 때 사제는 "주여 내 머리에 투구를 씌우사 마귀의 공격을 막게 하소서"라 기도한다.

3. 장백의: 개두포 다음에 입는 옷으로 발끝까지 내려오는 희고 긴 옷이다. 이는 사제가 제대에 오를 때 가져야 할 육신과 마음의 결백과 은총을 뜻한다. 사제는 장백의를 입을 때 "주여! 나를 결백하게 씻으시고 내 마음을 조찰케 하사 나로 하여금 고양의 피로 결백하게 되어 영원한 즐거움을 누리게 하소서" 하고 기도한다.

## 판공성사(判工聖事)란?

판공(判工)이란 말은 신자들의 영신공부(靈神工夫) 상태를 살펴보고 그 잘 잘못을 가리는 심판신공(審判神工)의 준말이라 생각된다. 따라서 교회가 해마다 부활과 성탄대축일 전후해서 실시하는 이「판공」에는 으레히 참고(參考)라는 전통어린 제도가 꼭 붙어 다닌다. 마치 세말의 준엄한 주님 심판을 방불케 미리 예행 연습하는 것이라고나 할까?

그래서 신부(神父)는 판공이 시작되면 우선 이렇게 교우들의 신공(神工)실태를 심사(참고)한다. 첫째, 하느님 생명의 말씀인 복음(성서)과 구원의 교리에 대해서 얼마나 익히고 공부를 하고 있는지, 둘째, 기도생활과 수제준법생활은 잘 하고 있는지, 그리고 신도들의 전교활동과 교회 유지 운영 참여도는 어떠한지를 살펴보고 지도 훈계한다.

그리고는 심사를 마친 사람들에게 사죄(赦罪)의 은총을 입게 하는 고백성사와 성체성사(미사)의 신비인 영성체(領聖體)의 특전을 누리게 한다. 또 그의 필요한 다른 성사(聖事)들도 받게 하고, 이것이 우리 성교회(聖教會) 교유의 「판공성사」다.

아무튼, 판공성사는 우리 자신의 신앙생활 갱신을 위한 반성과 다짐의 고마운 배려요, 중요한 종교행사다. 모두 빠짐없이 참례하여 자신의 신익(神益)을 도모하고 기쁘게 부활하신 주님을 맞도록 하자. <김봉희신부>

- 표 구 일 절
- 서 화 매 매

### 윤 표 구 사

전주시 중앙동 1가 48  
(다가동 파출소 앞)  
윤 병 훈(아오스딩)  
전화 ② 6 4 4 5

- 생화·각종 화분·신부부케
- 교우분들, 자주 들려 주세요

### 진 선 미 꽃 집

전주극장 골목 전화 ②2628  
범띠또(떡배)·이 마리아

귀가 어두운 분께 보청기를 권합니다  
의료 과학 기계 시약

### 東南醫療科學器械商社

전주시 서노송동 639~40  
(중앙성당 옆)  
☎ ③ 6900 야간 ⑧ 0496  
金 樂 均(요셉)

## 각 본당 레지오(마리아 군단) 육성에 박차

우리 교회 신교의 역군 「마리아 군단」이 금년 여인 회갑을 맞는다. 본 교구에선 교구 진흥을 25주년 행사 준비에 한창 바쁜 일손들이고. 온통 경축 물결이 출렁일 것만 같다.

더우기 금년은 「이웃 전교의 해」, 그래서도 각 본당은 이 레지오(Legio)에 특별한 관심과 육성에 더욱 열을 올리는가 보다. 곳곳에 굵직굵직한 행사와 군단(쁘레시디움) 조직의 회소식들로 가득차 있다. 모두 반가운 일, 복된 경사로서다.

전주와 이리지구에선 아치에스(봉헌서약) 행사에 한창이고(전동, 서학동, 복자는 3월 22일 전동에서, 중앙은 29일, 덕진과 파티마는 4월 5일 덕진에서, 그리고 이리 주현동 본당은 3월 29일 오후에 각각 개최), 군산지구에서는 23일 오룡동이 꾸리아 창설 1주년 기념행사를 갖는데 이어 26일엔 월명동에서 단원 1일피정을 갖았다. 그리고 6지구 진안과 한들 본당에서는 각각 새로히 신설 뿌레시디움을 창설해 기치를 한껏 드높였다.

사실, 성모 마리아를 사령관으로 모신 복음의 군단(軍團)으로 편성된 레지오 마리아가 주교님과 신부님들을 도와 그분들의 지도와 협조아래 이룩한 업적은 이루 헤아릴 수 없다. 모쪼록 「군대같이 두려우신 저 여인」(아가 6, 9)과 함께 한 레지오의 힘찬 발전과 신규 조직 보장 그리고 복음에 충실하려는 열심한 교우들의 많은 참여 있기를 빌어 마지 않는다. 교구내 모든 단원들께 새삼 주님의 축복을 기원하면서...

## 중앙의 이채로운 연도(鍊禱) 대회

지난 주일(22일) 중앙성당에서는 본당내 22개 단체가 모여 이색 「연도대회」를 갖었다. 본 대회는 300여명의 회원들로 강당을 펴 메운 채 주임(文正鉉)신부의 상장예규(喪葬禮規)에 관한 말씀으로 시작되었는데, 관모를 씌운 모의 관과 고상, 초, 향, 성수를 준비한 엄숙한 모습속엔 연옥에 있는 연령(鍊靈)들의 환호성이 들리는 것만 같았다. 그리고 그 많은 신자들이 모두 성교예규 책을 다 가지고 있는데 우선 놀라기도 했지만, 곡을 맞춰 드리는 기도의 음울엔 마치 구슬픈 꽃마차의 장송행렬이 지나는 듯 숙연하기까지 했다.

오늘의 각박한 세태 탓인지 안타깝게도 점점 빛을 잃어가는 연도, 그러나 고인(故人)의 명복을 빌며 유족에 질은 위안과 감명을 안겨주는 우리 교우의 위령기도—그 얼마나 값지고 고귀한 우리들의 성의요, 추모의 정이던가! 교형들의 가득한 일체감 속에 모처럼 의미깊은 사도(思悼, 追悼)예절과 문상, 연도의 중요성 그리고 그 진가(眞價)를 되찾게 일깨워 준 신부님과 회원들께 깊은 감사와 성원의 박수를 보내 드린다.

우리 모든 본당들도 떠나는 형제들의 친국길(行)을 축복해 드리는 상장과 연도에 인색함이 없도록 이런 대회와 관심을 고조해 보면 아니 좋을까? 또 기대해 본다.

## 국제 성체대회 참가자 선정

금년 7월 루루드에서 개최되는 국제 성체대회 참가자 명단이 발표되었다.

각 본당에서 많은 분들이 추천되었으나, 교구별 배정(전주교구 7명) 관례로 부득이 다음 일곱 분만이 선발, 참가케 된 것이다.

저로의 축복과 좋은 양해 있으시기 바란다.

참가자 명단 : 김치덕(바오로, 김제본당), 박노안(바오로, 복자),  
 옥춘자(루시아, 숲정이), 하상일(막달레나, 화산),  
 김선원(말세리나, 월명동), 허순덕(메레사, 복자),  
 박메리수(벨라니아, 노송동) <이상 7명>

## 요심이(399) 김병오

여보세요  
당신 축하해요



선거운동때  
공약한사업은  
꼭 실행해야...



무라고해요?



선거때 공약한것을  
믿는 사람은 바보란다



### 사원 모집 공고

당사는 수출품 섬유업체로 금년 사세확장으로 인하여 아래와 같이 미싱기능공 및 보조공을 모집하오니 많은 응모 바랍니다

—아 —  
 기능공 : ○○명  
 보조공 : ○○명  
 기간 : 81년 4월 1일부터 수시접수  
 연령 : 18세 이상  
 ※ 미싱공은 특별우대

### 중앙섬유 공업사

대표 : 박경환(마태오)  
 전주시 금암동 475번지  
 전주공장 전화 ④3843

문교부가 인정한 유일(唯一)한 보급기관

## 회 원 모 집

신속·정확히 읽음  
속도법(速讀法)!

초·중·고·대·일반  
성경속독반 그룹지도

사단법인 한국독서능력개발  
연구회 전북지부

성모병원 3층 ④ 4567  
조 윤 희(베드로)

### 三星物産 전주특약점

워크엔드 Weekend  
버킹엄 Buckingham  
맥그리거 MCGREGOR  
주니어 아동복 (남 여)

전주시 중앙동 3가 96  
삼화약국 옆 전화 ④ 4 4 5 1  
유 율 리 안 나

광고 신청은  
월요일까지 :

③5098

## 결 (축) 혼

신랑 : 최 정 준(아타나시오)  
 신부 : 김 정 희  
 일시 : 1981년 4월 5일(오전 11시)  
 장소 : 전주 가톨릭센터 강당  
 주례 : 김 불 희 신부님  
 ※ 제 미사

제 4 지구 각 본당 소식

공지사항

1. 제 4 지구 지구회합...4월 2일<목> 전동성당에서
2. 제 4 지구 교리교사 연합회 월례회: 일시-3월 30일 오후 6시 30분  
장소-덕진 천주교회, 주제-81년도 설계
3. 대학생 연합회...① 화요미사 및 신앙강좌  
② 회관정리(식목행사)-4월 5일 2시, 회관  
③ PAX ROMANA DAY-4월 11일 3시, 회관

(중양)

전화 ③3651 ③874

주임 신부 윤정환  
보좌 신부 유인홍  
사도 회장 박인규

5. 특별교리: 3월 30일~4월 11일까지 매일 저녁미사후
  6. 4월 27일~5월 16일까지 미사: 4월 26일까지 접수
- 지난주 봉헌금: 391,795원

(서학동)

전화 ③2276

주임 신부 김병환  
사도 회장 한철수

1. 사도회 상임위원회: 4월 4일 오후 7시
  2. 봄 판공: 3월31일-저노1·2, 태평1·2, 교사(오후7시 30분), 4월 1일-진북·인후·금암(오후 7시30분), 2일-중·고등학생(오후 7시30분), 3일-경원·중노·기타(오후 7시30분), 4일-주일학교 어린이(2시30분), 7일-병자방문 판공, 8일-간중리·용흥리(간중공소에서) 10시30분 ※ 노인 판공 4월 7일 10시
  3. 교무금 신입: 81년도 교무금 신입하시고 성사보세요
  4. 아치에스 행사: 오늘 오후 2시 성당에서
  5. 동물농장 영화상영: 오늘 저녁미사 후(강당)  
-간중이 넘치는 영화-
  6. 부활 성가연습: 어머니성가대-4월 2일 10시 30분  
청년성가대-4월 1일부터 매일 밤미사 후
  7. 주일학교 어린이교육: 어린이교리 토요일 오후 3시  
어린이미사-토요일 오후 4시 30분
  8. 감사헌금: 익명 2분 각50,000원, 오지성씨 10,000원
- 지난주 봉헌금: 537,535원

1. 가정방문: 31일-5반, 4월1일-4반, 2일-3반, 3일-2반, 7일-1반, 반장님들 9시 30분까지 성당 집결
  2. 공소 판공일자: 4월 8일-광곡리공소, 9일-마음리공소, 오전중 가정방문 있음(오후 3시 성사)
  3. 본당 올드래미: 31일<화> 저녁미사 후
  4. 사도회 월례회: 다음주 공식미사 후
  5. 미사시간: 새벽-6시, 공식-10시, 저녁-7시30분
  6. 어린이 영세예비자 특별교리: 매일 오후 5시~6시
  7. 차주 전례: 독서-①박형식 ②김수길, 기도-차상열
- 지난주 봉헌금: 181,280원 교무금: 211,700원

(숲정리)

전화 ③7366

주임 신부 이대권  
사도 회장 이강노

1. 제16차 성령세미나 개최: 4월 6일부터 11일까지  
매일 저녁 7시 30분~9시30분까지, 직장인 참여바람
  2. 예비자 교리안내: 일반부-매주<일> 공식미사 후  
매주<수> 저녁미사 후, 노인반-매주<토> 오후 2시
  3. 지난주의 예비자 불려: 6명, 예비자를 안내하신 분들  
은 예비자 교리를 받을수 있도록 지도하시기 바람
  4. 베소라 성서강의 임시휴강: 3월 31일과 4월7일(2회)
  5. 수녀님들을 위한 베소라성서특강: 매주<월> 오후2시
  6. 금주의 성경읽기: 구약의 신명기 전체
  7. 성령기도회: 매주<금> 오후 2시~4시까지
  8. 교무금 납부의 날: 오늘은 교무금 납부의 날입니다  
81년도 교무금을 신입 못하신 분은 속히 신입하세요
- 지난주 봉헌금: 305,100원

1. 요양회 월례회: 공식미사 후
  2. 사도회 월례회: 4월 5일 공식미사 후
  3. 평신도 강론: 4월 5일, 김수점 교장선생님께서 수고
  4. 주일학교 후원회: 월례회 4월 2일
  5. 누알다 부녀회 월례회: 4월 4일
  6. 봄 판공일지 안내: 진북2동 2반~5반-3월 31일<화>  
진북2동 6반~7반-4월1일<수>, 금암동-4월2일<목>  
서신동1구-4월7일<화>, 서신동2구-4월8일<수>, 진북1동-4월9일<목>, 배평동-4월10일<금>  
직장인과 학생 매주 토요일
  7. 차주 전례담당: 해설-이규철,  
독서-이홍재·김남근, 기도-강원도
  8. 신축기금: 파티마성당 신일액중(일십만 이천원)
- 지난주 봉헌금: 314,679원

(전동)

전화 ③3222

주임 신부 김병업  
보좌 신부 박병준  
사도 회장 이종두

1. 오늘 모임: 진북회, 부녀부 (찬림 참석 요)-미사후
  2. 젊은이들 미사: 87명, 젊은이 참석바람, 일요일저녁
  3. 맥의 귀염둥이 주일학교로 보내 주셔요  
일요일 오후 2시 교리, 3시 미사
  4. 오늘부터 성사표 받아주세요: 판공 4월5일 매미사후
  5. 성지순례: 4월 8일, 오전 6시 30분 출발  
참가비-5,000원, 미사도구 접심,  
경유-아산만, 솔피-도고온천
  6. 오늘 반석회 모임: 저녁미사 후, -진급도의
  7. 미사시간 변경: 오전-6시, 저녁-8시(29일부터)
- 지난주 봉헌금: 476,890원

1. 글라라 형제회: 오후 1시 30분
  2. 중·고학생 미사시간 변경: 4월부터 오전 8시30분
  3. 교리교사, 쉼지도와 피정(3월25일) 무사히 마쳤음
  4. 사도회: 다음주 공식미사 후
  5. 성가정회: 4월 1일 12시(정오)
  6. 다음주(4월 5일) 전례담당  
아침미사: 해설-박중구, 독서-① 문치구 ②김강선  
공식미사: 해설-양현홍, 독서-① 백중훈 ②이영태  
저녁미사: 해설-경양수, 독서-① 이승호 ②김동수
- 지난주 봉헌금: 489,120원

(파티마)

전화 ③0915

주임신부 김영일  
사도회장 채수원

1. 사도회 월례회: 오늘 공식미사 후
2. 첫칠레 7: 4월4일<토> 저녁 7시30분미사. 성체강복
3. 부활 판공성사 일정: 4월6일<월>-다가동·중앙동, 7일<화>-태평동·교사동, 8일<수>-진북동·화산동, 9일<목>-완산동, 11일<토>-기타, 학생, 직장인.  
오전 10~12시, 오후 2~5시 날차와 시간을 엄수  
※ 판공성사 칼고-일상기도문
4. 미사시간 엄수: 주의-성당안에서 사담을 금하며 다  
리를 피고 앉아야하는 자세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1. 파티마 성모회 월례회: 오늘 공식미사 후  
4월 첫주에 예정인데 4월5일 주일 아치에스행사 때  
문에 앞당겨옵니다
  2. 유아세례: 오늘 3시미사 후
  3. 내일(30일) 들꼭지공소: 4월 1일 두현리 공소
  4. 다음 4월 12일 주일에 본당 판공성사 부주교님이 오  
셔서 고백성사 주십니다  
(성사표는 사전에 전부 찾아가 주십시오)
  5. 22일 주일 성모기사회원 백여명이 모여서 피정신공  
을 무사히 잘 마쳤습니다
  6. 수녀원 신축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드러가니 신축 신  
입하신 분은 완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지난주 봉헌금: 180,480원 어린이봉헌금: 1,775원  
교무금: 217,000원 감사합니다